

서남대, '2016년 의학교육 평가' 불인증

4월 11일 이전 재심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18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제한 등 차질

서남대학교가 어둡고 긴 터널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재정기여자 선정·확보에 따른 정상 화계획서가 교육부로부터 무산되고,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의과대학 마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아 또다시 존폐 기로에 놓인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30일 서남대에 따르면 의과대학이

의평원이 시행한 '2016년 하반기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대학측은 4월 11일 이전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우선 2018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생긴다. 의과대 신입생 모집이 제한되고, 이

를 알고도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특히 재심에서도 불인증 판정이 내려질 경우 교육부는 서남대 의과대학에 대해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6월 재정기여자로 선정된 예수병원 유지재단 컨소시엄의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이미 무산됐다.

교육부는 예수병원 컨소시엄의 재정 능력 상태 등을 문제삼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남대측은 내달 20일까지 또 다시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찾아 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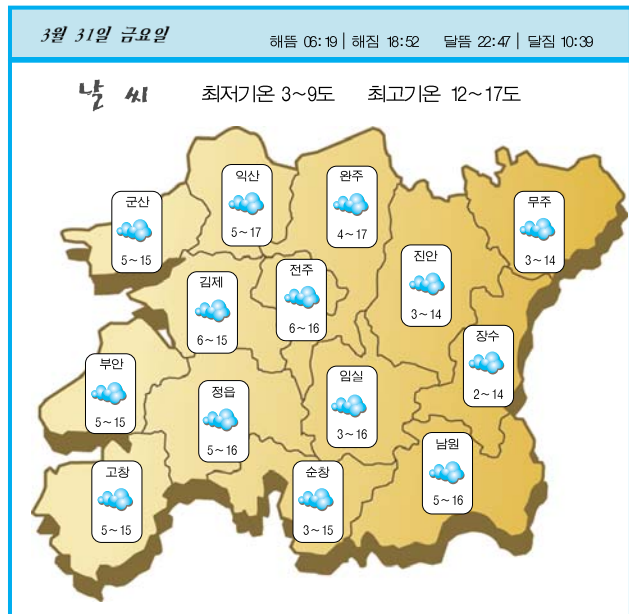
화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마땅한 재정기여자를 찾기도 현재로서는 물음표이다.

실제 교육부는 예수병원 유지재단 컨소시엄을 비롯해 명지의료재단, 서남대 구(옛) 재단 등이 제출한 계획서를 모두 미흡 평가 결과를 내렸다.

이는 재정 능력이 탄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남대학교는 설립자 이용하씨의 교비 횡령에 따른 구속, 경영부실 대학 지정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뉴시스



전북대, 한국적 美·생태 조화 이룬 캠퍼스 조성 박차

식목일 앞두고 한국 정취 물씬 나는 인사동길·공감터길 등에 꽃나무 5천주 식재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를 대하고유의 브랜드로 만들어 가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대대적인 나무심기를 통해서 한국적 미와 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캠퍼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대는 식목일을 앞둔 30일 오후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 1백여명이 참석해 본부 앞에서 인문대, 사회대로 향하는 '인사동길'과 대학 외곽 인도를 캠퍼스 안으로 집어넣어 조성한 '공감터길' 등에 진달래 5천주를 심었다.

매년 캠퍼스 곳곳에 다른 수종의 나무를 심어 온 전북대는 화내를 자연친화적 캠퍼스로 가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캠퍼스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전북대 한스타일 건물 1호 격인 인문사회관과 한옥 정자, 전통형 데크길 등이 위치한 인사동길에 꽃나무를 대량 식재해 이곳이 한국적 아름다움과 수려한 자연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명소 중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총장은 "오늘 식목행사는 캠퍼



전북대는 식목일을 앞둔 30일 오후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 1백여명이 참석해 본부 앞에서 인문대, 사회대로 향하는 '인사동길'과 대학 외곽 인도를 캠퍼스 안으로 집어넣어 조성한 '공감터길' 등에 진달래 5천주를 심었다

스에 단순히 꽃나무만을 심는 행사가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와 결부돼 우리대학만의 브랜드를 만

드는 일이며 "이를 잘 가꾸고 활용한다면 전주 한옥마을과 같이 전주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사

랑하고 즐겨 찾는 명품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혜은 기자

전북교육청, 선거기간 공직기강 확립

전북도교육청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5월 9일로 예정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내 전체 유·초·중·고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엄단하겠다"면서 불시점검 등을 통해 위반자를 엄벌하는 등 공직기강을 강력하게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급 기관(학교)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선거 관련 교육,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등을 포함한 복무·보안 점검 등을 적극 시행해 공

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와 관련해 제한되는 공무원의 주요 행위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참여 및 기획의 실사에 관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도도 조사·발표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다. /정혜은 기자

덕진공원 음악분수 내달 1일부터 물줄기

전주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덕진공원에서 운영하는 음악분수가 오는 4월1일부터 다시 가동돼 시민들을 만난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30일 겨울 동안 중단됐던 덕진공원 음악분수를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설치된 덕진공원 음악분수는 지난해 보수공사를 완료함으로써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워터스크린 영상, 수중조명, 음향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 등을 연출할 수 있게 됐다.

음악 분수는 봄 가을 주간에는 3회(오후 1시30분·3시30분·5시30분부

터 15분간), 야간 1회(오후 8시부터 30분간) 운영된다.

여름의 경우 주간 운영시간은 봄·가을과 같고 야간 1회(저녁 8시30분부터 30분간)는 일몰시간에 맞춰 30분 가량 늦춰진다.

특히 야간 음악분수 운영 시 사랑하는 가족, 연인 등과 함께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은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기념품 축하영상이나 프리포즈 영상 등을 연출해 주는 이벤트 데이도 운영한다.

이벤트 데이 신청,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덕진공원 고객센터(063-239-2604)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에서
복합한 교육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자'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